

기술사는 과기처가 관리해야

PE have to be managed by MST



許 塏

한국기술사 奉仕團長

우리學會 會長

『기술계의 활발한 교류가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국가가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코 기술계의 꽃이라 하는 기술사가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한 엔지니어가 돼서는 경제발전에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정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국제 건설기술교류의 場을 마련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4년 미국에서 「미국기술사 1호」를 취득하고 한국 기술사들의 위상제정립과 기술사에 대한 국제간의 상호능력인 점을 주장하고 나선 허진희장(한국기술사회 부회장 겸 대한화약기술학회 회장).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남아공학연합회(FEISEAP)에 한국대표로 유일하게 참석하여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속에 내버려진 한국 기술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許회장은 엔지니어 외길 46년 인생을 회고한다.

『우리보다 뒤늦게 개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개도국에서도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앞장서 파견단을 대거 참석시키는데 한국은 어떠한가 깊이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허회장은 이렇듯 정부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수준이하로 미흡한 것은 「제도의 틀」

자체에 문제가 크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에 해당하는 기술사의 관리를 단순 근로자 또는 기능공 관리를 전담하는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현실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기술계의 최고수들을 주관하기에는 기술적·관리적 능력이 못미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호 교류해야 하는 21세기의 현실을 무시한 한심한 행정체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현행 노동부의 주관업무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처로 기술사 관리업무가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 許회장의 주장이다.

『일반 상식적으로 상각해봐도 기술사에 대한 제도의 비합리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法이며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공직자의 현실을 똑바로 보는 시각과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 없는 소신있는 정책집행을 촉구합니다.』

51년 대학을 졸업하고 46년간 국내 기술계의 질적·양적 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許회장은 현재까지 한국기술사회 부회장과 대한화약기술사회 회장직을 20년간 맡아오는 등 72세의 나이도 잊은채 기술계의 대부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97.9.10일자 내외건설신문에서 전제한 것이다.)